

卜辭을 通해 본 中國의 古代國家

曹 佐 鎬

이 小論은 八七年度 本大學에서 行한 「中國古代史」講義 案의 一部를 要約한 것인데, 지금으로써 보던 不滿이 적지 않으나 時間關係上 그대로 내기로 하였다.

- 一. 序 言
- 二. 甲骨文時代研究法
- 三. 殷民族의 起原
- 四. 氏族組織
- 五. 祭政政治
- 六. 統治組織

一. 序 言

오늘날의 東洋史學界에 있어서 가장 學界를 빛내고 있는 것은 무엇 이라 하더라도 甲骨學의 發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中國의 古代人들은 祭祀는 勿論이거니와 王의 出入 田獵 征伐 年의 豊凶 風雨等 모든 百穀事를 반드시 神意를 물어 그 神意에 따라 解決 하고 處理하였던 것이니, 龜의 腹甲이나 背甲 또는 소 양의 肩甲骨의 裏面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表面에 神에게 묻고 싶은 말을 새긴 뒤 이것을 불에 쪼이면 그 表面에 破裂이 생기는데, 이 破裂의 狀況을 보고 吉凶을 判斷하는 것이었다. 이 龜甲 獸骨위에 새겨져 있는 文字를 이른바 甲骨文字라 하고, 十九世紀의 末에 비로소 殷王朝後半期의

서울이라고 推定되는 殷墟 곧 河南省安陽縣小屯村에서 發見되었기 때문에 殷墟卜辭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 殷墟卜辭는 이때까지 알려진 中國의 古代文字 金文 곧 銅器에 새겨져 있는 銘文에 比하면 더욱 더 原始的이기 때문에 一見하여서는 그 解讀이 대단 困難한 것이었다. 여기에 이 甲骨文字를 解讀하려는 甲骨學이라는 새로운 專門分科의 學問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甲骨學은 羅振玉氏 王國維氏等の 中國의 우수한 學者들에 의하여 이미 그 基礎의 確立을 보게 된 것이었으나, 特別히 一九二八年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가 南京에 設立되어 董作賓氏 李濟氏等을 主班으로 日華事變이 일어나기 直前까지 十五次에 걸친 大規模의 科學的인 殷墟發掘이 行해진 結果는 石器 青銅器의 遺物은 勿論 甲骨文字의 新資料를 豊富히 얻게 되어, 甲骨學은 새로운 進步를 보여주게 되었다.

이 結果 從來 疑心을 받아 온 殷王朝의 實存性이 確認되었을뿐더러 三千餘年동안 잠자고 있던 中國古代의 文化를 눈앞에 두듯이 그려내어, 甲骨學은 全世界 學界의 寵兒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對한 研究는 尙 介紹조차 한 일이 全然 없으니 참으로 遺憾이라 아니 할수 없다.

이제 筆者는 斯學에 對한 注意를 喚起시키는 意味에서 極히 간단하나마 斯學의 最近研究動向과 이에 의하여 알려진 中國의 古代文化에 對하여 몇가지를 적어 보기로 하겠다.

二. 甲骨文斷代研究法

河南省安陽附近의 殷墟에서 出土하는 龜甲 獸骨이 처음으로 學者들

의 注意를 기울게 된 것은 一八九九年 清末 山東의 金石學者 王懿榮氏가 商賈들이 가져다 주는 甲骨위에 文字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異常하게 느껴 이를 寶藏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田氏가 寶藏한 甲骨는 王氏가 義和團의 亂으로 말미암아 殉死한 뒤에는 劉鶚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劉氏는 그 뒤 甲骨의 收集을 繼續하여, 一九〇三年 甲骨文字의 拓本을 影印하여, 「鐵雲藏龜」 六卷을 出版하여 널리 學界에 紹介한 바 있었다. 實로 이것이 甲骨文이 처음으로 學界에 紹介된 始初이었다.

이어서 췌 一九〇四年에는 經學의 大家 孫詒讓氏가 그 文字를 解讀하여 「契文學例」 二卷을 著述하여 甲骨文研究의 礎石을 놓았다.

그 뒤 清末의 金石學者들 사이에 甲骨文字研究가 盛行되어 많은 業績을 남기게 되었다. 特히 羅振玉氏는 甲骨文字의 拓本을 編集하여 「殷墟書契菁華」「殷墟書契」前後篇 其他를 出版하는 한편 그 解讀에 努力하여 「增訂殷墟書契考釋」이라는 劃期的인 大著述을 남게 되었다(1)

이러한 孫氏 羅氏를 中心으로 한 金石學者들의 努力에 의하여 甲骨文字가 漸次 解讀되자, 이에 따라 그 內容도 밝혀졌다. 여기에 王國維氏는 孫羅 兩氏의 解讀을 根據로, 兩氏에 의하여 밝혀진 卜辭의 內容과 古代의 文獻과는 比輕研究하여, 「殷墟卜辭中所見先公先之考」 및 「殷周制度論」 등의 諸論文을 發表하여, 여기에 비로소 甲骨文을 資料로 한 殷代史研究의 礎石을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時期의 甲骨文字研究에는 資料 그 自體에 重大한 缺陷을 內包하고 있었던만큼 不完全한 點이 적지 않았다. 殷代人들은 占卜을 할 때에 龜甲이나 獸骨을 한번만 쓰고 버린 것이 아니라 數次에 걸쳐 이를 썼기 때문에, 한개의 甲骨위에는 原則적으로 여러 行의 卜辭가

多數 새겨서 있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當時 出土되어 있던 甲骨는 이러한 完全한 甲骨(中國에서는 이것을 甲骨大版이라 한다)은 하나도 發見되지 않고 모두 그 破片 또는 斷片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甲骨斷片을 資料로 使用하려면 어떤 方法이든지 이것을 接合復原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當時의 甲骨學의 方法論的으로 困難한 點이 있었던 것이니, 甲骨學이 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殷代의 同時 史料로서 決定的인 是認을 받지 못한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一九二〇年代에 이르러서는 甲骨學은 完全히 沈滯狀態에 빠져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서는 廣汎한 新資料의 發見과 새로운 研究法의 樹立이 期待되었다. 一九二八年 國立中央研究院이 設立된 것은 實로 이러한 時期이었던 것이다.

中央研究院에서는 董作賓氏를 主班으로 거의 每年 連續하다싶이 殷墟의 科學的인 發掘을 繼續하여, 그 成果를 「安陽發掘報告」「小屯」「田野考古報告」「中國考古學報」等に 發表하였다. 特히 第八回以後는 從前의 發掘地인 小屯에서 좀 떨어진 侯家莊附近에서 殷代의 墳墓를 發掘하여 未知의 刻葬品을 많이 얻을뿐 더러 甲骨新資料도 많이 얻어 이 以後의 甲骨學進歩에 큰 貢獻을 하였다.

董作賓氏는 一九二八年 第一回發掘에서 얻은 新甲骨資料를 整理하여 翌年 「安陽發掘報告第一期」에 「新獲卜辭寫本」을 公表하고, 또 第三回의 發掘에서는 甲骨를 貯藏해 둔 穴倉을 發見하여 거기에서 이때까지 보지 못한 完全한 甲骨 곧 甲骨大版 四板을 얻어 이를 「安陽發掘報告第三期」에 「大龜四版考釋」으로써 公表하였다.

이 大龜四版의 發見이야말로 從來 沈滯狀態에 빠져 있던 甲骨學의

새로운 展開의 契機를 준 것이니, 이에 의하여 從來 困難하였던 甲骨斷片의 系統的 接合에 一定한 準則을 준 것이다. 곧 이 大龜四版의 各卜辭에는 日의 干支를 아니라 月次까지 쓰여 있어서 殷代曆法에 關한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였을뿐 아니라, 各卜辭가 새겨진 順序를 찾아내는 標識을 주고 있으며, 또 焦灼한 구멍의 左右에 同一文의 卜辭가 散亂的으로 새겨져 있는 이른바 對卜法이 發見되어, 各卜辭短文間의 順序관계에 關한 法則을 알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從來의 甲骨斷片의 大版의 어느 部分에 屬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었으며, 甲骨斷片에 새겨져 있는 卜辭 各個의 短文이 서로 어떤 連絡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順序로 만들어진 것인가를 알게 되어, 卜辭解讀에 큰 便利를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波紋을 學界에 던진 것은 董作賓氏가 大龜四版의 考釋에 의하여 서로 提起한 甲骨文斷代研究法(2)이었다. 그러면 甲骨文斷代研究法이란 무엇인가?

일찍기 羅振玉氏는 「商貞卜文字考」 및 「殷墟書契考釋」에서 甲骨文에 나타나 있는 祖宗의 名稱과 史記殷本紀에 실려 있는 殷의 四十三代의 王系와를 比較 研究한바 있었는데 近世의 大史學家 王國維氏는 이를 더욱 더 發展시켜 이에 關한 所見을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同續考」의 諸論文에 發表하고 뒤에 「古史新證」에서 이를 綜合的으로 敘述하였다.

王國維氏의 說明에 의하면 卜辭에는 史記王系의 本名과 同一名으로 나타나는 것에 大丁 大甲以下 武乙에 이르는 十六王이 있고, 王系와는 그 이름이 다르나 假令 卜辭의 變를 王系의 帝堯으로, 卜辭의 土를 王系의 相土로, 卜辭의 季를 王系의 冥으로, 卜辭의 王亥를 王系

의 核으로 하는 것과 같이 考證에 의하여 比定할수 있는 十九王을 發見하였다. 그리고 王氏는 다시 두개의 卜辭斷片을 接合하여 史記의

(上甲) 徵一報丁一報乙一報丙一主壬一大乙

의 王系는 誤謬이며, 卜辭에 의하여

(上甲) 徵一報乙一報丙一報丁一示壬一示癸一大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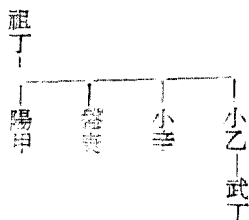
로 訂正해야 된다는 것도 發見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王國維氏는 史記殷王系中 天下를 統一한 大乙以下 三十帝內 沃丁 雍己 河賓甲 沃甲 廩辛 帝乙 帝辛의 八王을 除外한 二十二帝를 卜辭의 人名과 一致시키는에 成功하였다. 이 結果 史記의 王系는 多少의 修訂을 要한다하더라도 全體的으로 볼때에는 正確한 史實을 傳하고 있다는 것이 明白해져, 이때까지 確實한 史料가 적다하여 疑心을 받아 오던 殷王朝의 實在性이 確認되었다.

한편, 王氏는 殷王朝가 殷墟 곧 지금의 河南省 安陽縣으로 서울을 옮긴 殷墟遷都에 關한 古典中의 여러가지 舊說을 批判한 結果, 盤庚이 墟殷로 遷都하여 帝紂가 周에게 滅亡될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古本竹書紀年의 記事를 가장 正當한 것이라 하고(3); 따라서 殷墟의 卜辭는 盤庚以後 帝紂에 이르기까지의 十二王 八世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勿論 이것은 文獻學的으로 推定한 것이지만은 王氏는 한편 卜辭中에도 이를 證明할만한 證據가 있다 하여 다음의 두가지를 들고 있다.

殷王室은 父子相續과 兄弟相續을 混用하고 있었는데, 數人의 兄弟가 차례로 相續한 뒤 그의 아들이 相續하여 先父및 그 以外의 伯父를 祭祀할때에는 이것을 다 같이 「父某」라 하여 並祀하는 것이 通例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父甲 父庚 父辛 父乙을 合祀한 卜辭라든지,

父甲 父庚 父辛을 合祀한 卜辭가 있는바(4), 이것을 史記王系에 比較하면



에 比定되는 것이니, 이 卜辭는 武丁時代에 四名의 父 陽甲 盤庚 小辛 乃至 小乙의 四帝를 合祀하였을 때에 만든 卜辭인 것이다.

또 父丁 兄己 兄庚의 並祀를 卜한 卜辭가 있는바(5) 丁이란 이름을 가진 父 밑에 己 庚의 이름이 붙은 二王이 兄弟相續한 것은 王系에는



以外에 없다. 그러므로 이 卜辭는 祖甲時代에 父 武丁과 亡兄 孝己 祖庚의 祭祀를 卜한 것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王國維氏는 이러한 手續을 밟아가면서 그 製作年代가 決定된 卜辭를 援用하여, 殷王朝가 殷墟에 都邑하고 있던 期間과 따라서 거기에서 發見된 卜辭의 製作年代의 上限과 下限을 上述한바와 같이 決定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王國維氏에 의하여 殷墟卜辭는 盤庚에서 紂王 사이에 만들어 질 것임이 알려져, 卜辭의 同時史料로서의 價値가 確認되었다.

그러나 王氏가 卜辭의 製作年代를 決定한 것은 上述한 두 例에 그치고 다른 卜辭에 對하여서는 이를 決定지울수 없었다. 이 點에 關하

여 새로운 貢獻을 한 것이 上述한 董作賓氏의 甲骨文斷代研究法이다. 이것은 真人을 媒介로 卜辭의 製作年代를 決定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方法의 媒介가 되는 真人이 란무엇인가?

假令

癸卯卜。亓貞出父甲犬。

이라 한 것과 같이, 卜辭는 普通 占卜을 行한 日의 干支를 冒頭에 두어 「癸卯卜」이라 始作하고, 다음에 亓이란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貞字가 있다. 貞字는 묻는다는 뜻인데, 結局 이 卜辭는 「父甲에게 개(犬)로써 祭祀지내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卜字 밑 貞字위에 있는 亓字와 같은 글字는 數十箇의 異字가 있어서, 從前에는 이것을 或은 官名이라 하고 或은 地名이라 하고 或은 卜問內容을 表示한 것이라 하여 一定의 定論이 없었으나, 董作賓氏는 여러가지로 比較研究한 結果, 이것을 神에게 卜問內容을 묻는 卜師(真人)의 이름이라 생각 하였다. 곧 卜字 밑 貞字위의 文字는 王命을 받아 占卜을 할때에 甲骨를 붙여 굽기 前에 神에게 卜問한 卜師(真人)가 自己의 이름을 署名한 것이라고 解驛한 것이다.

그러면 한개의 龜甲 獸骨은 數回以上 數十回의 占卜에 使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數十箇의 卜辭가 적혀져 있어서 따라 真人의 署名도 하나 같이 아니다. 이 同一版上에 共存하는 眞人名을 調査하면 거기에 一定한 畵比네이손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于先 이 畵比네이손을 基礎로 真人을 若干의 集團으로 나누고 各眞人集團의 時代를 決定하는 것이다. 假令 위에서 例로 든 卜辭에 父甲이라 한 것은 武丁이 그의 庶父 陽甲을 祭祀한 것이기 때문에 亓은 武帝時代의 真人인 것이다. 이리하여 董作賓氏는 「甲骨文斷代研究例」에 있어서 三期의 眞

人集團으로 區分하였다. 곧

(1) 第一期——武丁時代真人集團. 賓, 韋, 永等 十一人.

(2) 第二期——祖庚·祖甲時代真人集團. 大·出·兄·旅·卽·行等
六人.

(3) 第三期——廩庚·康丁時代真人集團. 彭·逆·宁等 六人.

을 定한 것이다.

또 卜辭內에는 真人名을 省略한 形式 例를 들면

癸卯. 貞 旬亡田
 二 七

과 같이 日의 干支 밑에 곧 貞字와 卜問을 쓴 것이 있다. 이런 類의 卜辭는 그 內容이 上甲徵에서 大乙 大丁 大甲 大庚 大戊 中丁 祖乙 祖辛 祖丁 小乙 武丁 祖甲을 祖甲의 손자 武乙이 祭祀한 것이기 때문에 武乙·文丁의 時代의 것이라고 推定된다. 이리하여

(1) 第四期——武乙·文丁時代 干支貞形式 卜辭의 一類를 만들수 있다. 또 卜辭中에는

癸巳王卜貞. 旬, 亡尤.

와 같이 日의 干支 밑에 「王卜貞」이라고 連書한 것이 있다. 이런 形式의 卜辭는 黃·冰二真人名을 가진 卜辭 또는 真人名을 省略하고 「干支卜貞」의 形式을 取한 卜辭의 一類로서, 그 中에는 人方 곧 東夷征伐에 關한 內容을 가진 卜辭가 많아 이것이 史書에 傳해져 있는 殷帝紂의 東夷征伐說話와 一致하므로 殷代末期 帝乙·帝辛時代의 것이라고 推定되는 것이다. 여기에

(5) 第五期——帝乙·帝辛時代王親卜貞形式·真人黃冰卜辭의 類가 成立된다.

以上을 모두 합치면 殷墟卜辭는 五期로 區分되는 셈이다. 이리하여

(10) 卜辭을 通曉 은 中國의 古代國家(曹)

大多數의 卜辭는 이 真人署名 或은 獨特한 形式을 基準으로, 五期의 어느 것에 屬하는 것인가 그 精密한 製作年代를 손쉽게 決定지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甲骨文斷代研究法은 真人說을 基準으로 한 것이지만, 이 밖에 卜辭가 出土된 坑位狀態라든지 或은 十干十二支를 비롯한 文字字形이라든지 或은 卜辭에 使用한 吉凶에 關한 慣用語및 其他用語의 變化라든지 或은 書體의 變化率도 모두 이 五期의 區分에 適合하다는 것을 董作賓氏는 많은 實例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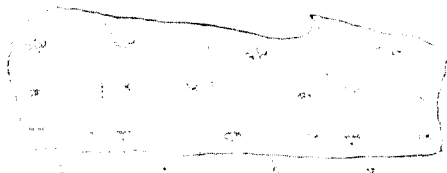
이 極히 大膽한 研究法은 部分的으로는 아직 缺點을 包含해 있다 하더라도, 大體로 보아 많은 學者들의 支持를 받고 있다. 이리하여 沈滯되었던 甲骨學은 이 董作賓氏를 中心으로 다시 活氣를 띄어, 이以後 많은 成果를 거두게 되었다.

(註) (1) 羅氏의 「殷虛書契釋」에서는 解讀된 文字三七〇. 未解讀文字九一八. 計 一四八八字이다. 그러나 最新의 孫海波氏「甲骨文編」(一九三四年刊)에서는 解讀文字一〇〇六 未解讀文字 一一二를 收錄하고 있다. 그뒤 解讀도 進步되어 現在의는 約 一四〇〇字假設이 解讀되어 있다.

(2) 「慶祝蔡元培先生六十壽慶論文集」(民國二十二年) 上卷所載「甲骨文斷代研究例」 또는 董作賓「甲骨學五十年」(大陸雜誌一四三)

(3) 「古史新證」「先公先王考」

(4) 이類의 卜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父	甲	一	牲
父	庚	一	牲
父	辛	一	牲

(5)

兄	己	一	牛	兄	庚	木
歲	三	牛	眾			
具	玉	(敦)	父	丁		
祭	禮	卜	行			

(殷墟書契後編上卷十九葉)

三. 殷民族의 起原

殷王朝에 關하여서는 尙書의 商書中의 盤庚 高宗 彤日 周書中의 牧 誓 無逸 君奭等의 諸篇, 或은 詩의 商頌을 비롯하여 古典中에 相當히 豊富한 史料가 있지 마는, 이러한 古典自體가 殷代의 것이 아니라 後世의 製作이란 點과 또 그 記事가 極히 短片的이란 點에서, 殷王朝의 實在性은 疑心을 받아 왔다. 그러나 甲骨學이 發達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殷王朝는 完全한 歷史時代로 決定되었을뿐 더러, 殷王朝의 後半期 곧 武丁以後의 同時史料인 卜辭를 通하여 우리들은 中國의 古代世界를 具體的으로 엿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中國의 古代世界는 어떠한 世界이었던가 이것을 말하기 前에 于先 殷民族의 起原에 關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殷民族의 起原에 關하여 큰 示唆를 준 것은 一九三一年에 行해진 殷墟 後崗의 發掘調査이다.

이 後崗에는 最下層에 彩陶, 中層에 黑陶, 上層에 白陶를 包含한

文化遺物層이 整然한 層位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1). 그 뒤 殷墟附近의 高井台子 河南省 滄縣附近의 石器時代遺跡에서도 黑陶가 上層 彩陶가 下層에 있는 것이 發見되어 後崗에 있어서의 層序關係의 正確性이 實證되었다. (2)

이 層序關係는 新石器時代의 河南省 平原地帶에 처음 彩陶文化가 普及되었다가 뒤에 이것이 黑陶文化로 바뀌었고, 다시 이것이 白陶文化로 變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彩陶文化는 西方에 起原을 두고 甘肅 山西에서 河南平原一帶에 걸쳐 普及된 文化인바 對하여, 黑陶文化는 一九三〇年 中央研究院의 吳金鼎氏의 發掘에 의하여 山東省 龍山鎮 城子崖를 中心으로 하고 멀리 關東州沿岸에서 山東省 및 河南省에 걸쳐 分布한 文化인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 두 文化는 그 分布地域이 東西로 對立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文化內容에 있어서도 質을 달리고 있다. 곧 彩陶文化나 黑陶文化는 그 遺跡으로부터 다 같이 類似한 磨製石斧 有孔石庖丁等의 農具가 出土하고 또 穀粒이 나와 原始農耕文化임을 말해주고 있으나, 한편 彩陶文化遺跡으로 부터는 개 도야지等의 小家畜의 뼈밖에 보이지 않는데 對하여, 黑陶文化遺跡에는 이러한 小家畜以外에 소 말 羊等의 大家畜의 뼈가 發見되어 黑陶文化人이 彩陶文化人보다 牧畜에 優秀한 民族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山西省 萬泉縣 및 河南省 濼池縣에 있는 穴居址에 關한 報告에 의하면 彩陶文化人들은 小集團的 村落生活를 營爲하고 있었으나, 城子崖 黑陶人들은 四百米 四方의 흙벽물을 둘러싼 城壁內에서 大聚落을 形成하고 都市生活를 營爲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點에서 이 두 文化는 한 文化의 發展形態가 아니라 처음부터 質을 달리한 文化이며, 따라 그 文化荷擔民族을 달리한 것이라고 생각 되는 것이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殷墟後崗의 層序關係는 처음 河南平野에 彩陶民族이 살고 있다가 뒤에 黑陶文化民族에게 征服交替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中央研究所長인 傅斯年氏는 彩陶民族을 夏民族에 比定하고 黑陶民族을 殷民族에 比定하여, 殷民族은 본래 멀리 滿洲 朝鮮에 까지 널리 分布해 있던 東海岸民族인 東夷族의 一支族으로서, 처음에는 山東半島의 曲阜地方에서 黑陶를 만들고 農耕과 더불어 소 말 羊 등의 牧畜을 主要生業으로 하고 있다가, 뒤에 盤庚에게 引率되어 西方 河南省 安陽으로 侵入하여 거기에서 일찍부터 彩陶을 만들고 農耕生活을 營爲하고 있던 夏民族을 征服하여 여기에 殷王朝를 建設하였다는 것이다(3)

그러나 彩陶民族은 夏民族에 比定하는 것은 아직 想像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나, 殷墟의 殷王朝를 山東省 城子崖의 黑陶民族의 後身이라고 보는 데에는 黑陶關係以外에 이를 傍證할 만한 몇개의 證據가 있다.

(一) 城子崖에서도 卜에 使用한 鹿骨이 發見되어, 殷墟에서 發掘된 龜甲獸骨의 卜法과 거의 같은 方法으로써 吉凶을 占卜하고 있었다. 特別히 注意할 것은 城子崖에서는 卜骨의 뒤에 구멍을 뚫는 方式 骨鑽에 두 方式이 있다는 點이다.

無秩序하게 一骨에 多數의 구멍을 뚫는 單鑽과 세개씩 구멍을 뚫는 三連鑽과의 두 形式이 그것인데, 單鑽骨은 上下兩層에서 나오는데 對하여 三連鑽은 上層에만 限하여 發見된다. 이것은 後者가 前者보다 發達된 占卜形式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殷墟에서는 第一期의 甲骨에

(14) 卜辭을 通じ 본 中國의 古代國家(嬴)

이 三連綴의 痕跡이 남아있고 第二期以後에는 더욱 더 複雜한 卜法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와 같이 城子崖의 後期에 나타나는 三連綴이 殷墟의 第一期에 그 痕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殷墟初期의 文化段階가 城子崖의 後期의 그것과 接近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二) 山東省 城子崖의 黑陶民族이 農耕과 더불어 소 말 羊 등의 家畜을 主要生業으로 하고 있었다 함은 이미 말한 바이다. 殷墟卜辭에도 神에게 供物로 바치는 家畜은 소 양이 가장 많고 도야지 개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4). 神에게 바치고 神의 愛好를 받는 食物은 人間적어도 王室貴族의 實玩하는바가 아니면 아니 된다. 또 侯家莊의 王墓에는 馬骨단을 묻은 陪冢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말이 陪葬되었다는 것은 말이 殷代에 採用으로 戰車用으로 常用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殷民族 特히 貴族階級은 城子崖의 黑陶民族과 같이 소 말 羊 등의 家畜을 大量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殷王朝은 소 말의 家畜化를 自己들의 祖先의 功業으로 돌리고 있다. 곧 史記의 祖本인 世本에는 殷의 祖王인 相土가 말을 乘用하고 核가 소를 家畜化하였다고 傳하고 있는데, 相土는 卜辭에 보이는 土 곧 社神이며 核는 卜辭에 보이는 王亥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普通의 祖宗神과는 다른 特히 神話的인 高祖神으로서, 殷民族의 文化的 英雄이었다(5).

殷王朝가 祭祀의 供物로서 소 양을 많이 썼다는 것과 또 소 말의 家畜化를 위한 두 神을 特히 鄭重하게 祭祀하였다는 것은 殷王朝가 城子崖의 黑陶民族과 같이 牧畜에 優秀한 民族으로서 構成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三) 殷王朝가 盤庚以後 殷墟로 遷都하였다는 것에 關하여서는 古

典中에 여러가지 異說이 많다. 特別 盤庚以前의 都邑地에 關하여서는 札災로 말미암아 여러번 그 자리를 옮겼다 하여, 그 地點이 確實치 않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王國維氏는 古來竹書記年을 根據로 盤庚이 殷墟로 遷都하였다는 說을 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竹書記年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盤庚이 奄이란 곳에서 殷墟로 遷都하였다고 쓰여 있는 것이다. 奄은 뒤에 周初에 周公의 아들 伯禽이 封해진 魯國의 國都, 山東省 曲阜縣에 있던 先住民의 國名이다. 그러므로 竹書記年은 盤庚이 지금의 山東省 曲阜에서 殷墟로 遷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の 몇가지 點으로 보아 傅斯年氏의 假說中 殷墟의 殷民族을 山東省 城子崖의 黑陶民族의 後身이라고 하는 때에는 어느 程度 이를 首肯할만한 證據를 얻게 된 것이다.

註(1) 「安陽發掘報告」第四期六一三~六面

(2) 「中央研究院田野考古報告」第一冊

(3) 傅氏「夷夏東西說」(慶祝蔡天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下冊)

(4) 縮振王「殷虛書契考釋」八一葉

(5) 「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四. 氏族組織

史記殷本紀에 記載되어 있는 殷王朝의 王系와 殷墟卜辭에 나타나 있는 殷王朝의 祖宗의 稱謂를 比較研究한 結果 史記所傳의 殷王朝世系가 大體로 歷史的 事實임이 틀림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함은 이미 말한바와 같다. 그러면 이리하여 얻어진 殷王朝의 王系表를 보면, 大庚의 아들 小甲 雍己 大戊, 大戊의 아들 中丁 外壬 河亶甲, 祖丁의 아들 陽甲 盤庚 小辛 小乙, 武丁의 아들 祖己 祖庚 祖甲, 祖甲의 아들

康辛 康丁 등의 諸王의 世代에는 兄弟相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王國維는 일찍이 이 特異한 現象에 注目하여 그의 論文「殷周制度論」에서는 殷王朝의 兄弟相續制와 周王朝의 父子相續制의 對照를 指摘하고 兩王朝의 政治的 社會的 組織의 差異는 이를 基礎로 생긴 것이라고 論하고 있다.

또 郭沫若氏는 이 王國維의 論文이 提供하는 史料를 다시 社會史的으로 解釋하여, 殷三朝의 祖宗의 稱謂를 부나두아의 民族制度의 그것에 一致한다고 論하여 中國古代社會史研究의 先驅가 되었다. 이 王國兩氏의 學說은 現在에 있어서도 學界에 깊은 影響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兩氏가 學說의 典據로 삼고 있는 卜辭 그 自體가 問題될 것이며, 이에 關한 精密한 再檢討가 必要할 것이다.

卜辭는 一般적으로 祖父以上の 祖宗을 合祀할 때에는, 동생에 의하여 繼承된 傍系의 王은 없고 그 아들에 의하여 繼承된 直系王만을 祭祀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 傍系의 祖宗에 關하여서는 史記新傳의 兄弟相續制가 얼마만큼 施行되었는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卜辭가 製作된 것은 武丁에서 希辛에 이르기까지의 殷王朝의 後半期이었다. 卜辭에서는 이 時期의 王은 實父以外의 兄弟相續을 한 傍系의 諸父까지도 實父와 함께 「父某」라 稱하여 區別하지 않고 祭祀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武丁時代 곧 第一期의 卜辭에는 그의 父의 行列에 있는 陽甲 盤庚 小辛 小乙을 父甲 父庚 父辛 父乙이라 이름 밑에 祭祀하고, 康辛 康丁의 時代 곧 第二期 卜辭에는 父의 祖己 祖庚 祖甲을 父己 父庚 父甲의 이름 밑에 祭祀하고, 武乙時代 곧 第三期 卜辭에는 康辛 康丁을 父辛 父丁의 이름 밑에

祭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兄弟相續制는 第三期까지이고 그 以後의 武乙以下의 五王은 모두 父子相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殷墟初期에는 兄弟相續制가 行해지고 있었으나 後期에 이르러 父子相續制로 옮겨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從來 史記의 殷世表에 의하여 漠然히 取扱되었던 兄弟相續制는 여기에 董作賓氏의 甲骨文斷代研究法을 適用함으로써 그것이 實行된 時期를 明白히 알수 있게 된 것이다. 殷代의 兄弟相續制가 民族制度下의 類別的 親族組織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은 많은 論者들에 의하여 說明되어 온 바이다. 殷王朝의 兄弟相續制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單純한 兄弟相續制가 아니라, 아들이 實父와 伯叔父를 區別하지 않고 「父某」라는 稱謂로써 부르고 있던 類別的 親族組織과 結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殷墟 前半期의 殷王朝는 類別的 親族組織을 가진 民族制度下에 있었다고 主張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殷王朝 前半期의 民族制를 單純히 史記의 王系나 或은 殷墟卜辭의 祖宗祭祀의 稱號만으로써 立證하는 것은 너무나 一面的이라는 非難을 免치 못할 것이니, 여기에 實際로 行해지고 있던 族의 生活를 具體的으로 提示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殷墟卜辭에는

癸丑。子卜貞。來丁。酒伊尹。至。

라 한 것과 같이, 子라는 稱號를 가진 者가 卜事와 貞事를 行한 例가 數箇나 보이고 또 卜辭 全文에는 「子某」「子漁」「子央」 등과 같은 「子某」의 呼稱을 가진 것이 많이 보인다. 이 「子」를 郭沫若氏는 「王」의 別稱이라 하였으나(1), 董作賓氏는 이것을 王子라고 생각 하였다. 곧 이 「子某」는 祭祀지낼때에 아버지 世代의 全部를 가르키는 「父某」

의 名稱에 相應하는 類別的인 親族呼稱으로서, 王子들이 集團을 가르키는 것이며, 卜辭에 보이는 多子族이라고 推定한 것이다(2). 곧 當時의 王族의 青年男子들은 「多子族」이라는 한개의 集團生活體를 形成하여 殷의 首都附近에 居住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王子集團인 多子族은 가장 神聖한 王室 및 宗廟의 祭祀를 번갈아 가며 맡아보고(3) 또 卜辭에

甲寅卜. 彭貞. 多子其卿(=饗)이라 한 것과 같이 王의 饗宴에 參加하고(4)

己卯卜. 率貞. 令多子族从犬侯. 寇周. 古王事.

라 한 것과 같이 犬侯라는 邊境諸侯에 따라 西北의 敵國을 討伐하는데 從事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多子族」은 平時에는 共同으로 祖先의 祭祀를 맡아보고 王의 베푸는 饗宴에 參加하고 狩獵等으로써 武技를 練磨하며, 戰時에는 王朝의 親衛軍으로서 戰爭에 나아가 殷國軍의 主力을 이룩하고 있었던 것이다.

殷의 王子들이 「父某」에 對하여 「子某」라 일컫리고 集團生活를 營爲하고 있었던 것이 事實이라면, 적어도 殷墟初期에는 氏族의 生活이 存續해 있었음을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바와 같이 第四期以後는 兄弟相續制에서 完全한 父子相續制로 옮겨 가고 또 多子族도 殷王朝의 王子뿐 아니라 殷에 服屬해 있던 諸外國의 小子 小臣들까지 參加하고 있는 것을 보면(6) 殷墟末期에는 氏族組織은 變質 崩壞해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殷의 多子族은 周王室의 王子集團인 「公族」 또는 「師氏」에 對應되는 것인데, 殷의 多子族이 八個의 族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對하여 周의 「公族」 또는 「師氏」의 六個의 族으로 나누어져 있었다(7)

註 (1) 郭沫若氏는 그의 著 「卜辭通考」 一六二面에서 「子卜貞」 卜辭의 子에 對하여 「子卜與王卜問例 蓋天子之省稱也」라 하고 있다

(2) 「五等爵在殷商」 四二七面

(3) 同. 四二二面

(4) 「新獲卜辭」 (三, 二, 〇六五九)

(5) 「殷墟書契續編」 (五, 二, 二)

(6) 郭沫若氏 「殷墟粹編」 (一, 一六二)

(7) 貝塚茂樹 「金文에 보이는 錫臣의 記事에 對하여」 (東方學報京都第三冊)

五. 祭政政治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殷王朝는 한개의 氏族聯合體이었으니, 王은 族長인 同時에 祭祀長을 兼한 것이었다.

殷王朝의 文化는 巫術의 文化라고 할만큼 王朝의 百般事는 占卜에 의하여 決定된 것이다. 殷墟에서 出土하는 많은 甲骨위에 새겨진 卜辭는 實로 이 占卜의 記錄이었다. 卜辭에 의하면 殷王朝의 諸王은 天地山川 및 祖宗의 祭祀 王의 一切의 行動 및 國家의 行事, 例컨대 漁獵 外國征伐 年穀의 豐凶 或은 氣候 天候等의 自然現象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龜卜에 의하여 天意를 물었던 것이다. 殷王은 이 龜卜에 의하여 알아낸 天意를 받들어 이것을 政治的 行動으로 옮긴 것이니, 殷王朝의 政治는 말하자면 祭政一致의 神聖政治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占卜은 單純한 宗教的 行事가 아니라 國家의 大事인 軍事 祭祀 內治 外交를 決定하는 政治的 行爲이었으며, 이를 알아보는 占卜機關은 殷王朝의 最高의 行政機關이었다.

그러면 殷墟卜辭에 의하면 占卜行爲 및 占卜機關의 運用에는 前期와

後期에 따라 相當한 差異가 있었다.

董作賓氏의 甲骨文斷代研究法를 紹介하였을 때에 이미 말한바와 같이, 第一期 第二期 第三期의 卜辭에는 真人(卜師) 署名形式의 卜辭가 많다. 이 時期의 占卜은 干支日에 龜甲의 儀式을 舉行하고 真人(卜師)이 龜甲에 對하여 묻고싶은 말 곧 命辭를 읽고, 命辭와 自己의 뜻을 새기고 불에 쪼여 그 表面에 생기는 破裂을 보고 吉凶을 判定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破裂이 생긴 龜甲을 儀式을 主率하는 王에게 引渡하고 王이 스스로 이것을 보고 吉凶을 判定하여 그 吉凶을 命辭 다음에 새기는 일도 있었다. 이것을 繇辭라고 한다.

이 繇辭는 「來日 비가 오겠는가」 「來日 祖先의 祭祀를 지내도 좋은가」 따위의 比較的 判定이 쉬운 命辭에는 보이지 않고, 「次旬 十日內에 凶事가 없겠는가」 하는 것과 같이 破裂만으로서도 吉凶 어느 쪽을 判定하기 어려운 命辭에만 있는 것이다. 곧 「次旬 十日內에 凶事가 없겠는가」 萬若 「凶事가 있다면 어느 날에 있는가」를 判定하려면 十日 동안의 各日을 吉凶에 應하여 二十回나 占卜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各日을 代表하는 十名の 巫가 있어서 口頭로써 神託을 말하면 巫는 이 十名の 巫師들이 口頭로써 傳하는 神意를 綜合判定하여 그것을 繇辭로서 決定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王은 이들 十名の 巫師의 主宰者이며 巫師長이었던 것이다(1)

이러한 占卜樣式은 真人署名形式卜辭에 의한 龜卜으로서 上述한 바와 같이 第一期에서 第三期 사이에 行해진 形式이었다.

그러나 第三期以後가 되자 이와 다른 形式의 卜辭가 勢力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真人名이 全然 省略된 干支卜貞 干支卜 干支貞形式의 卜辭가 盛行되고 特別히 第五期에는 干支卜貞形式에 附隨하는 王親卜貞

形式의 卜辭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卜問形態의 變遷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그것은 眞人들이 屬해 있던 公의 占卜機關의 權力이 失墜되고 그 反面 帝王의 權力이 強大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곧 殷墟初期에는 民族連合의 公的 占卜機關인 卜師의 宗教的 權威는 相當히 強大했기 때문에 殷王室은 占卜의 強力性을 必要로 하여 그 眞人名을 特筆한 것이나, 末期에는 이 氏族連合의 公的 占卜機關의 宗教的 權威는 殷王室의 世俗的 政治權力 밑에 完全히 無視當하였기 때문에 眞人の 署名이 抹殺當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던 처음에는 氏族連合의 한개의 祭祀長에 지나지 못하였던 國王이 차차 그 世俗的 權力을 強化시켜 專制君主로서의 性格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註(1) 貝塚茂樹「龜卜과筮」(東方學報 十五冊四分)

(2) 同 上

六. 統治 組織

卜辭에는 殷王이 다른 곳에서 서울 殷墟로 還幸한 것을 짐친 卜辭가 있는데 이에

貞今七月王入于商。

이라 하여 서울을 商이라고 부르고 있다. 史書에서는 例컨대 尙書 牧誓篇에

今商王受。四方之多罪逋逃。以爲大夫鄉士。俾暴虐于百姓。

以姦究于商邑

이라 하여 首都名뿐 아니라 王朝名에도 商字를 쓰고 있다. 이것을 보

면 本來는 그 首都를 가리켜 商邑이라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國家名으로 쓴 것 같이 생각 된다. 이에 對하여「殷」이란 이름은 卜辭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王朝自稱의 이름이 아님이 分明하다.

周가 殷을 滅亡시키고 天下를 統一한 뒤에 생긴 文獻 例컨대 尙書 酒浩篇等에는

寧在商邑 越殷國滅無罹

라 하여 首都名으로서는 商邑을 쓰고 國家民族名으로서는「殷」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殷」이란 國家名은 周가 殷을 滅亡시킨 前後에 周王朝側에서 붙인 呼稱이라고 推測되는 것이다.

元來 殷王國은「商」이라 하는 한개의 都市國家이었다. 몇개의 氏族이 連合하여 城壁을 둘러싼 都市에 居住하여, 同一의 土地神인 社稷을 祭祀하고 外敵을 共同으로 防禦하기 위하여 組織된 祭祀 및 軍事의 共同體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殷王이 直接 統治한 것은 殷墟 및 그 郊外에 지나지 못하고 當時의 中原의 땅에는 많은 都市國家가 並存해 있었던 것이다.

殷墟 卜辭에는 苦方 土方 孟方等과 같이「某方」이라 일컫는 나라들이 때때로 王國의 邊境을 侵入하여 성가시게 하고, 王國은 이를 討伐하기 위하여 여러번 外征의 師를 일으켰다는 記錄이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方」은 殷의 政令에 服從하지 않는 獨立國 또는 外國敵國을 가리킨 名稱인데, 方은 邦과 同音으로서「國」을 意味한 것이었다. 尙書 多方篇의「多方」이란 文字는 殷代에 諸外國을 가리켜 쓰고 있던 用語를 周初에도 踏襲한 것인데, 周에서는「方」대신에「國」이란 文字를 많이 쓰기 시작하여 諸外國은 四國이란 말로써 表現하였던 것이다. 殷은 이 獨立國의 君主를 卜辭에「夷方伯」「孟方伯」이라 한

것과 같이 方伯이라 부르고 있었다.

卜辭에는 諸侯의 稱號로서는 「侯」를 많이 쓰고 「伯」「子」 등은 比較的 적다. 「侯」는 外國 곧 「方」의 征伐에 있어서, 王命을 받들어 從軍하고 王國의 軍隊의 先導가 되어 敵國을 친 일이 많다. 이것을 보면 「侯」는 直接 殷王朝의 政令을 받고 있던 諸侯이었던 것 같다.

또 卜辭에 孟方이라 일컫리는 外國의 君主 孟方伯을 征伐하였을 때에 殷王이

丁卯。王卜貞。余其^々多田于多伯。征孟方伯。

이라 한 것과 같이 「伯」이라고 부르는 諸侯 밑에는 「田」이라고 하는 小諸侯가 있는데, 伯侯는 田侯를 統轄하고 있다. 생각컨대, 殷王國의 邊境에는 直接 王朝의 政令을 받고 王國에 奉仕하는 侯伯 등의 諸侯國이 있고 다시 그 밑에는 「田」이라는 小諸侯 곧 附庸國이 있어서 侯伯을 通하여 間接的으로 王朝의 政令에 服從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殷代에는 이미 王과 侯伯, 侯伯과 田의 一次的 二次的 封建關係가 存在하였고, 이에 應하여 侯伯과 田의 二級의 位階가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王國維氏는 그의 論文 「殷周制度論」에서 周의 封建制度를 周公의 創始라고 論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周의 封建制度는 決코 周代에 비로소 創設된 것이 아니라 이미 殷代에 생겨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周의 封建諸侯는 一族 또는 功臣을 封한 것이나, 殷의 諸侯는 在來로부터 있던 異民族의 部族國家를 그 때로 그 獨立을 承認하고 그 族長을 諸侯로 封한 것이라고 생각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方伯 侯伯 田 등을 殷王朝와의 地域的 統屬關係에서 統

습해 보기로 하겠다.

殷王朝의 地方統治組織은 首都 商邑 곧 殷墟를 中心으로 그 距離에 應하여 세 種類의 各各 다른 統治方法이 適用되어 있었다고 생각 된다

第一種은 商邑 및 그 郊外의 殷王室의 直轄領地로서, 殷王國을 構成하고 있는 王族 및 多子族等의 諸民族이 居住하고, 被征服民族의 어떤 者들을 奴隸 또는 諺民化하여 農耕 및 牧畜에 使役하고 있었다.

第二種은 商邑 郊外에서 다시 그 外廓을 包括한 地域으로서, 被征服民族의 以前부터 存在하고 있던 部族國家들이 殷王朝의 承認한 侯 或은 伯의 監督 밑에서, 殷王朝에 對하여 賦役 兵役의 義務를 負擔한 것을 誓約하고 半獨立의 保護國家群을 形成하고 있었다.

第三種은 方이라 하여 商邑에서 가장 떨어진 곳에 있던 獨立國家群으로서 殷王朝의 統治는 直接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極히 가벼운 意味에서 殷王의 宗主權을 認定하고 때로 使節을 派遣하여 入貢하였다.

卜辭에는 第一種 第二種의 地域에 있는 國家에 關한 史料가 極히 적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은 이 적은 史料를 基礎로 理想型的으로 構成한 한개의 圖式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 둔다. 그러나 第三種의 方에 關하여서는 卜辭에 相當히 豊富한 史料를 가지고 있다. 特히 武丁 時代의 第一期卜辭에는 西北方의 「苦方」「土方」이라 부르는 游牧民의 나라들이 때때로 侵入하여 掠奪하였다는 것과 또 이를 防禦하기 위하여 大規模의 軍隊를 動員하고 討伐한 것을 점친 것이 많이 나타나 있다(1)

그러나 第二期以後가 되면 그렇게도 激烈하였던 西北游牧民과의 抗爭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것을 殷王朝가 이들 游牧民을 順撫시

키는데 成功한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殷王朝는 여기에 一時 平和를 얻어 그 繁榮을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第四期武乙文丁時代 第五期帝乙帝紂時代에 들어가자 새로 東方의 民族과 葛藤을 이르기게 되었다. 곧 東方의 山東半島方面은 本來 殷民族의 原住地로서 殷民族이 西方 河南平野로 올라간 뒤에는 殷民族과 親絲關係에 있던 여러 部族들이 居住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諸部族을 總稱하여 「人方」 또는 「夷方」이라 불렀는데, 그들은 서로 聯合하여 殷王朝에 對抗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므로 殷王朝는 이를 討伐하기 위하여 여러번 軍隊를 派遣하였는데, 特히 殷王 十五年의 親征이 가장 大規模의 討伐作戰이었던 것이다(2).

殷帝 紂王은 이 作戰에서 「人方」 또는 「夷方」에게 큰 打擊을 주어 이를 鎮壓하는데 큰 成果를 거두었으나, 그러나, 大軍을 이러한 먼 곳으로 派遣하였다는 것은 經濟力을 消耗시키고 또 精銳兵士를 많이 잃어 戰鬥力의 低下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 前門의 浩랑이인 人方을 몰아낸 殷은 뜻밖에 後門의 이리인 周民族의 侵入을 받아 滅亡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周는 殷王朝로부터 「周侯」라는 稱號를 받고 있던 한개의 屬國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차차 그 勢力이 커져, 武王時代에 이르러서는 殷王朝의 東夷征伐의 軍事費賦課에 不平라 不滿을 품고 있던 諸侯國의 要望에 應하여 드디어 厥起하여 殷 征討의 軍師를 일으켰던 것이다.

周武王은 商邑의 郊外 牧野平野에서 殷王紂의 軍隊와 一大決戰을 한 끝에 드디어 이를 滅亡시키는 비成功하였다. 이리하여 湯以後 三十代에 걸쳐 내려오던 殷王朝는 드디어 滅亡하고 만 것이다.

註(1) 董作賓「甲骨文斷代研究例」方圖의 項。郭沫若「卜辭通纂攷釋」征伐의 項,

(2) 貝塚茂樹「中國古代史學의 展開」餘論「殷末周初의 東方經略에 對하여」